

종합

전남도 '엇박자 행정' 도마위에

호남고속철 노선 대응도 못하고 '우왕좌왕'

구제역 확산 불구 해동이 행사 자제 요청만

전남도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 선정 평가 결과 자료를 통보받고도 일주일 가까이 공식 입장은 커녕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예방 백신을 접종키로 확정했는데도 시·군의 '해동이·해남이 행사'에 대한 취소·자제 요청 대신, 축산농가의 행사장 참석 자제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노선 선정 결과 17일 통보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17일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

가 결과를 전남도 관계자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측은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평가가 끝난 뒤 4개 대분류(교통·사업성·정책·환경)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와 22개 세부 평가 점수표 등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전남도는 지난 17일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확인했지만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지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무늬만 고속철'인 노선으로 선정될 경우 유력한데다, 무안공항 경우도 고속 신선이 아니라 고속철 도입 취지 및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노선 선정이라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거센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측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가 끝나야 하지만 4개 대안 노선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나온 만큼 사실상 가장 유력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어 전남도가 '공문서'라는 형식에 얽매어 지역 핵심 이슈인 고속철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 등 협의를 거쳐 최종 노선 선정이 확정된 뒤에야 전남도가 요구하는 '공문서'가 발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엇박자' 대응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메일로 보냈을 뿐 정식 공문이 아니라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선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확산 대응도 엇박자=전남도는 23일 22개 시·군의 축산 농가에 대해 '해동이·해남이 행사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 구제역이 경북·안

동, 경기도 이어 강원 평창·횡성까지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가 애초 22개 시·군 자치단체에 '해동이·해남이 행사' 취소나 자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70여년 청정 축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 대책의 '마지막 수단'인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확정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지역이 일정 반경을 대상으로 한 '링 백신'이지만 확산 여부에 따라 전남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확산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는 해동이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내 16개 시·군 54곳에서 개최하는 해동이 행사를 홍보하고 나서 '부서간 엇박자' 논란도 일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930년대 지어진 광주의 근대건축물인 수피아여고 무용관이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철거를 면했다. 사진은 23일부터 철거할 예정이었던 수피아여고 무용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피아여고 강당 하마터면 헐릴 뻔

1932년 건립된 광주 근현대사 귀중한 건축물

문화재위원 등 반대로 철거방침서 보존 선회

사라질 뻔 했던 광주의 근현대 건축물이 가까스로 철거를 면했다. 지난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피아여고 무용관이 철거되기 직전 광주시문화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 '보존'을 당부하자 학교 측이 애초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광주 수피아여고는 23일 "이번 주 내로 교사 앞으로 가로막고 있던 무용관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전문가들이 근현대건축물로 높은 가치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와 당분간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무용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으며, 면적은 300여 m로 추정된다. 1910년 3·1일 만세운동으로 수피아여고가 폐교되자 당시 전남대의대의 모태인 광주의전이 무용관을 교사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남대 교수는 "1930년대 건립된 건축물은 지역 내 10개도 안 될 정도로 희귀하다"며 "없어진 뒤 소중한 유산을 깨닫기보다 사라지기 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피아여고를 찾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에도 193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피아여중 별관(1930년대 건립 추정)이 철거되고 신식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지난 2000년 남광주역사(1934년 건립), 한국은행 광주지점(1950년 건립), 2007년 광주 YMCA 금남로관 열 일본식 목조주택(1910년대 건립)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 있다.

수피아여고 관계자는 "언제부터 전문가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하니 보존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외동포 등 복수국적 허용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 1일 발효된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년말 법무부가 발의해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4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조 직후 시행에 들어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발효된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 제30차 정기 총회가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매일신문 이창영 사장, 경인일보 송광석 사장, 부산일보 김중열 사장, 대전일보 신수용 사장, 강원일보 이희중 사장, 경남신문 김순규 회장, 광주일보 유제철 사장.

중편 선정 후속대책 협력키로

한국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중열 부산산일보 사장)는 이달 말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최종 선정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이후의 대응방안과 대기업의 지방신문 광고 미집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지역신문사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는 23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에서 제주일보를

제외한 8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특히 회원사들은 동아일보사와 체결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회원사들의 입장에서 개선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협력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내는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대기업의 지방지 광고 확대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광고국장 등 광고 실무자 차원에서가 아니라 각 회원사들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대성기자 nmaker@busan.com

광주문화재단 출범 '젠걸음'

23명 채용... 27일부터 직원 워크숍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정책을 수립할 광주문화재단이 직원 채용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문화재단은 23일 재단의 신규 직원 채용공고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신규 직원은 2급 2명, 3급 7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기능 7급 1명, 기능 8급 1명 등 23명이다.

2급인 문화정책실장에는 박호재 북구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이, 문화관광실장에는 선재규 광주교대 초빙교수가 선임됐다.

타입잡인 3급에는 전고필 동산대 도시관광학과 겸임교수가 문화관광팀장에, 김지원 전남대호남학연구원 양동시장 사업단장이 정책기획팀장에 선임되는 등 7명이 선발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직무 워크숍을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광주문화재단 신규채용 응모에는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총 58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해 평균 25.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유기농법 '명인' 지정

도의회 조례제정

전남지역에서 유기농법 농사만 잘 지어도 '명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제 2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조례'를 의결했다.

김동주(당양 2·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유기농업 확산과 소득창출, 생명 식품 산업 육성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런 조례 제정으로 벼·밭작물·과수·채소·축산 등 6개 분야에서 5년 이상 특화된 유기농법 실천기술을 정립한 농민은 명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빛의 만평

- 김중두



나라고 별 수 있나? 털렸지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지금 티켓몽키에서는 할인권 무료 증정

티켓몽키 가입회원 모든 분들께 팝아티스트 키스해링 특별전 2,000원 할인권 무료!

언제까지? 2011년 1월 3일까지! 지금 바로 티켓몽키 회원이 되어보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부동산 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상업중

무치공인 원위치 일곡지구 북부서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계)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의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빌딩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발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협협동조합
안강농협협동조합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 3일(월) 1차시험 (5월 29일)대비
주·이근번/주말반 *12월 말일까지 등록자 모두에게 청명딸기 1kg 증정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석사, 윤종하(전)풍관원, 초대농품사형위원장, 손승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전농업전문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동부경찰서~전일빌딩)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